

범죄행동과 성격특성의 연결 :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 충동성 그리고 감각추구성향을 중심으로

이 인 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범죄행동과 성격특성을 연결시킬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과 외향성, 충동성 그리고 감각추구성향에 있어서 습관성 범죄자와 정상인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피험자는 모두 남자들로서 수감되어 있는 습관성 범죄자 62명과 통제집단 30명이었다. 모든 피험자들에게 아이젠크 성격검사(EPQ), 바렛트 충동성척도(BIS) 그리고 쥬커만의 감각추구척도-V(SSS-V)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정신병적 경향성과 운동적 충동성에서는 범죄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높았고, 외향성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권태민감성에서는 통제집단이 범죄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척도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볼 때, 범죄집단에서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높은 척도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비해 통제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범죄행동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크게 강조되어 왔다. 즉, 결혼과정에서 성장했거나,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그밖의 범죄의 취약성을 높이는 열악한 생활환경 등이 정적인 자극의 결핍을 초래하고 따라서 개인으로 하여금 이탈된 행동, 특히 반사회적 범죄행동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행동을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에만 귀인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발생율은 줄기는 커녕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범죄 촉발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어도 범죄하는 사람보다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으며,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 중에서도 범죄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행동의 발생은 환경적 요인들로만은 설명하기 어렵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그렇듯 범죄행동도 개인의 성격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습관성 범죄자들에게는 어떤 독특한 성격특성이 발견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다(Cleckley, 1964; Claridge, 1985; Eysenck & Eysenck, 1976; Gray, 1981).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범죄행동을 유발시키거나, 범죄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적 취약성을 심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특성을 정신병질적(psychopathic) 또는 반사회적(anti-social) 성격이라고 부른다. 정신병질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자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교정기관이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도 많다. 이들은 위험한 장면에도 처해도 크게 불안해 하거나 긴장하는 일이 없으며 신의와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진실로' 뉘우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또한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自愛的(egoistic)이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대인관계는 원만치 못하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지 못할 때는 특히 난폭해진다(이현수, 1990).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정신병질자들로 알려져 있다(이현수, 1990; DSM-III, 1980).

범죄행동과 성격특성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특히, 성격의 근원에 대해 생물학적 접근을 하는 학자들은 정신병적 경향성과 외향성 그리고 충동성과 감각추구성향 등을 강조하고 있다. Eysenck (1967; Eysenck & Eysenck, 1976)는 자신의 3차원적 성격이론을 적용하여 범죄자들에게는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P)과 외향성(extraversion, E)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을 하였다. Eysenck의 성격차원들 중에서 정신병적 경향성은 특히 정신병질자들을 잘 구분해 주는 차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차원상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타인에 대해 동정심이 결여된 특성을 보여준다고 한다(Eysenck & Eysenck, 1976). 따라서 범죄자들이 이 차원상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또 높은 점수를 받는 범죄자일수록 재범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Putnins, 1982). 이 같은 경향은 소년범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수감되어 있는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한 이인혜와 유희정의 연구(1987)에서도 소년범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정신병적 경향성이 유의미하게 높으면서 외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ysenck의 외-내향성 차원(extraversion-introversion, E)은 개인의 조건화능력을 평가해주는 차원으로 이 차원상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외향성으로 그리고 낮은 점수를 받으면 내향성으로 간주된다. 외향성은 내향성에 비해 대뇌피질의 각성수준이 만성적으로 낮다. 각성수준이 만성적으로 낮으면 조건화능력(conditionability, 학습능력)이 빈약해지는데, 정상인들보다 더 외향적으로 평가되는 습관성 범죄자들은 그들의 조건화능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사회규범과 부적절한 행동을 제지하는 능력을 습득치 못한 것으로 설명된다.

성격과 범죄행동간의 관계를(조건화능력 보다) 충동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 Gray (1981)는 범죄자들은 처벌자극에 대해서는 조건화가 안되지만 보상자극에 대해서는 정상인들과 다른(오히려 더 나은) 조건화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는 이들의 강한 충동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Claridge(1985)도 충동성이 높고 불안이 낮은 사람을 본질적인 정신병질자(primary psychopaths)로 보고 있다. 충동성은 반응의 속도가 빠르고, 생각없이 말하고 행동하며, 예견능력이 부족한 성격특질로 정의할 수 있다(Barratt, 1983).

충동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그들의 인지적, 운동적 및 정신생리적 평가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한다. 따라서 Barratt는 그동안의 성격검사에서 하나의 하위척도로 간주되어 오던 충동성을 독립된 차원으로 분류하면서 인지적, 운동적 및 정신생리학적으로 충동성의 세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인지적 템포가 빠르다. 즉, 예를 들어, 시간평가 과제를 실시할 때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시간이 실제보다 느리게 간다고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과제에서 부정확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RT 과제수행에서 더 많은 오류를 범하며 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특히 시각적 과제수행시 대뇌피질에서 측정가능한 CNV¹⁾를 일

1) CNV(contingent negative variation) : 경고신호(S1)가 주어지고 나서 자극(S2)에 반응할 때, S1과 S2 사이에 나타나는 대뇌의 전기적 활동

으키지 못한다. 이는 각성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충동성은 정신병질자의 중요한 성격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Cleckley, 1964; DSM-II, 1968; DSM-III, 1980).

정신병질자의 또 다른 성격특성으로 감각추구성향(sensation-seeking trait)이 강조되기도 한다. 감각추구성향은 다양하고 새롭고 복잡한 감각과 경험을 원하며 그러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신체적 또는 사회적 위험까지도 기꺼이 무릅쓰려는 특질로써(Zuckerman, 1979), 외향성 및 충동성과도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Barratt, 1983).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외향적이고 충동적이며, 처벌에 둔감하고 보상에 민감한 생리적 기제(尿中 17-Ketosteroid수준과 뇌의 MAO수준은 낮고, 생식호르몬의 수준은 높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Zuckerman, 1985).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며 새로운 활동과 경험의 추구에 따르는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위험하고 모험적인 일에 쉽게 도전하게 된다. 반면에 감각추구성향이 낮은 사람은 환경에 대해 질서와 안전성을 원하며 위험이 다를 수 있는 행동이나 경험을 회피하게 된다(김채옥, 1987).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특히 높은 賦活性(activation)수준을 뜻하는 낮은 MAO수준은 범죄자와 습관성 약물사용장애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또 이들 중에서 높은 감각추구성향이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Zuckerman, 1983; Feij, Orlebeke, Gezanden & van Zuilen, 1985).

Zuckerman은 감각추구성향을 평가하기 위해 감각추구척도(Sensation-Seeking Scale, SSS)를 개발하였고, 4가지 하위척도를 제안하였다; 드릴과 모험추구(Thrill & Adventure Seeking, TAS), 경험추구(Experience Seeking, ES), 脫制止(Disinhibition, Dis), 倦怠敏感性(Boredom

Susceptibility, BS) 척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ysenck는 정신병적 경향성과 외향성을 그리고 Claridge와 Gray는 충동성을, 또한 Zuckerman은 감각추구성향을 습관성 범죄자들의 주요 성격특성으로 각각 간주하고 있다. 이같이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조금씩 다른 것은 정신병질적 행동이 어느 성격특성 하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정신병질적 행동은 몇 가지 성격특성의 결합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신병질적 성격요인'에 관한 연구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신병질적 성격특성들의 상관성 연구는 부분적(예를 들면, 외향성과 충동성, 그리고 외향성과 감각추구성향간에만)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정상인과 구별될 수 있는 습관성 범죄자, 즉 정신병질자의 특징적 성격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누범의 기록을 가진 습관성 범죄자들과 정상인들을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성격척도들 상에서 비교해 보고, 또한 이 두 집단에 있어서 각 성격특성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았다. 물론 본 연구에 참여한 범죄집단의 피험자들이 비록 누범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정신병질자들은 아닐 것이다. 이들 중에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러한 연구는 이들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범죄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정신병적 경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II. 범죄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더 외향적일 것이다.

가설 III. 범죄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충동성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IV. 범죄집단은 통제집단보다 감각추구성향이 더 높을 것이다.

방 법

의 負的인 이동으로 신호자극에 대한 개인의 각성수준을 나타내 줌. CNV는 대뇌피질의 두정(vertex) 영역에서 측정되는 ERP(event related potential)의 한 형태임(Andreassi, 1989).

표 1. 범죄집단과 통제집단의 나이, 초범나이, 범수

		N	나이	초범나이	범수
범죄(집단)	절도범	32	28.56(4.50)	19.66(4.32)	3.69(2.43)
	폭력범	30	26.47(4.14)	18.30(3.40)	4.13(2.18)
통제 집단		30	23.57(3.28)		

* ()는 표준편차

1. 피험자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모두 남자들로서 범죄집단 62명(절도범 32명, 폭력범 30명)과 통제집단 30명의 총 92명이었다.

범죄집단은 연구 당시 강원도 소재 W교도소에서 절도 또는 폭력의 범법행위로 인해 수형중인 죄수들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35세이하(절도범: M=28.56 SD=4.50, 폭력범: M=26.47 SD=4.14)였고 2회 이상의 체포당한 경험이 있었다(절도범: M=3.69 SD=2.43, 폭력범: M=4.13 SD=2.18). 이들의 평균 초범나이는 절도범이 19.66세 (SD=4.32)였고, 폭력범이 18.30세 (SD=3.40)였다.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은 35세 미만(M=23.57 SD=3.28)의 남자 대학생들로서 체포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표 1>.

2. 도 구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성격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성격차원검사, 충동성척도 그리고 감각추구척도를 사용하였다.

(1) 성격 차원 검사

H. J. Eysenck의 성격특성들을 평가하기 위해 S. B. G. Eysenck와 이현수 공저(1985)의 한국판 '성격차원검사' 성인용을 두 집단에게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총 7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병적 경향성(P), 외-내향성(E), 신경증적 경향성(Neroticism, N), 그리고 허위성(Lie Scale, L)²⁾의 네 가지 하위척도를 가지고 있다.

(2) 충동성척도

충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E. S. Barratt(1965)가 개발한 Barratt 충동성척도(Barratt Impulsivity Scale, BIS)를 두 집단에게 실시하였다. BIS는 3개의 하위척도를 가지고 있으며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cognitive) 충동성(Ic), 운동적(motor activity) 충동성(Im) 그리고 무계획성(non-planning, Ip).

(3) 감각추구척도

감각추구성향을 평가하기 위해 김채욱(1987)이 변안한 Zuckerman(1979)의 감각추구척도-V (Sensation-Seeking Scale, SSS-V)를 두 집단에게 실시하였다. SSS-V는 드릴과 모험추구(TAS), 경험추구(ES), 탈제지(Dis), 권태민감성(BS)의 네개의 하위척도,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드릴과 모험추구(TAS): 격렬한 스포츠활동이나 신체적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을 추구하려는 욕구.
- ② 경험추구(ES): 여행, 약물, 예술활동 등 비관습적인 생활 양식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
- ③ 탈제지(Dis): 파티, 음주, 도박, 이성파트너를 바꾸는 등 쾌락적인 활동을 통해 발산하려는 욕구.
- ④ 권태민감성(BS): 같은 물건, 같은 사람 등 반복된 경험이나 일상적인 일 그리고 지루한 상황

2) 허위성 척도는 자신의 감정노출을 억제하며 소박한 사회적 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척도의 점수가 낮으면 사회적 장면에서 자신을 좀 더 낮게 보이려는 경향과 사회적 관습에 대한 순응성을 나타냄.

을 싫어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성향.

(4) 절차

- 통제집단의 피험자에게는 3가지 검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 범죄집단의 피험자에게는 교도관이 개인별로 3가지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 검사 실시 기간: 1991년 10월 15일-10월 27일.
- 자료처리를 위해 t-test와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결 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범죄집단과 통제집단은 정신병적 경향성(P)과 운동적 충동성(Im) 그리고 권태민감성(BS)의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 t=2.18, P<.032, Im: t=2.04, P<.044, BS: t=-2.42, P<.018). 즉, 범죄집단의 피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정신병적 경향성과 운동적 충동성이 더 높았고, 반면에 권태민감성에서는 정상인들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 <표 2>.

표 3과 표 4에는 범죄집단과 통제집단의 각 척도별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두 표를 비교해 보면 범죄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범죄집단의 경우, 정신병질자의 성격특성들로 간주되는 각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에 통제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범죄집단에서는 P-N, Ip, Im, Dis가 각각 99% 또는 99.9%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고, E-Dis, N-Im, Dis, Ip-Im, Ic가, 그리고 Ip-BS, Ic-ES, TAS-ES, Dis-ES, BS가 99% 또는 99.9%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L척도는 BS척도를 제외한 9개의 척도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표 3>.

통제집단에서는 Ip-Im, Ic와, Im-Dis가 99%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L과 TAS가 99.9%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을 뿐 P, E, N은 각각 어느 척도들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표 4>.

표2. 범죄집단과 통제집단의 각 척도별 평균점수, 표준편차 그리고 두 집단간의 차이검증

	성격 차원 검사				충동성 척도			감각추구 성향 척도			
	P	E	N	L	Ip	Im	Ic	TAS	ES	Dis	BS
범죄집단 M(SD)	3.2258 (2.378)	12.0806 (3.943)	14.8226 (3.753)	7.8387 (4.566)	23.6613 (7.488)	15.5484 (7.110)	16.0806 (4.953)	6.8387 (2.152)	4.6290 (2.068)	5.8710 (1.617)	2.5000
통제집단 M(SD)	2.1667 (1.724)	12.3333 (4.334)	13.3333 (4.604)	6.9667 (3.810)	23.4000 (5.506)	12.9333 (4.961)	15.3333 (3.397)	7.8333 (2.854)	5.1000 (2.218)	5.5000 (2.047)	3.3333 (1.398)
t-값	2.18	-.28	1.65	.91	.17	2.04	.85	-1.86	-1.00	.81	-2.24
유의도(Prob.)	.032*	.781	.101	.368	.865	.044*	.400	.066	.322	.421	.018*

* P: 정신병적 경향성 E: 외-내향성 N: 신경증적 경향성 L: 허위성

Ip: 무계획성 Im: 운동적 충동성 Ic: 인지적 충동성

TAS: 드릴과 모험추구성향 ES: 경험추구성향 Dis: 탈제지성향 BS: 권태민감성

표 3. 범직집단의 각 척도간 상관관계

		P	E	N	L	Ip	Im	Ic	TAS	ES	DIS	BS
성격 차원 검사	P	1.0000	.0977	.4492	-.3068*	.5817**	.2980*	.1780	-.1017	.2622	.3327*	.2004
	E	.0977	1.0000	.1007	-.2693	.0898	.1142	.1272	.1329	.0736	.4776*	.1247
	N	.4492**	.1007	1.0000	-.5300**	.3666*	.3337*	.2821	.0675	.1782	.3075*	.1580
	L	-.3068*	-.2693	-.5300**	1.0000	-.4985**	-.3672*	-.3459*	-.2937	-.4436**	-.4006**	-.0067
충동 성 척도	Ip	.5817**	.0898	.3666*	-.4985**	1.0000	.5859**	.4322**	.0067	.2400	.2999*	.3392*
	Im	.2980	.1142	.3337*	-.3672*	.5859**	1.0000	.4563**	.1002	.1712	.1743	.1968
	Ic	.1780	.1272	.2821	-.3459*	.4322**	.4563**	1.0000	.1043	.4019**	.1642	.2159
감각 추구 척도	TAS	-.1017	.1329	.0675	-.2937	.0067	.1002	.1043	1.0000	.3084*	.2531	-.0848
	ES	.2622	.0736	.1782	-.4436**	.2400	.1712	.4019**	.3084*	1.0000	.4036**	.2702
	Dis	.3327*	.4776**	.3075*	-.4006**	.2999*	.1743	.1642	.2531	.4036**	1.0000	.4313*
	BS	.2004	.1247	.1580	-.0067	.3392*	.1968	.2159	-.0848	.2702	.4313**	1.0000

* : P < .01 ** : P < .001

표 4. 통제집단의 각 척도간 상관관계

		P	E	N	L	Ip	Im	Ic	TAS	ES	DIS	BS
성격 차원 검사	P	1.0000	-.1231	.0970	-.0044	.2035	.1586	-.1453	-.2816	.1759	.0440	.3625
	E	-.1231	1.0000	-.0438	-.1016	-.2052	-.1785	-.1319	.1915	-.0861	.1050	-.2239
	N	.0970	-.0438	1.0000	-.3198	-.0707	.3075	.3631	.2065	-.1216	.1610	.1965
	L	-.0044	-.1016	-.3198	1.0000	-.2459	-.3121	-.0764	-.5841**	-.2852	-.2100	.3065
충동 성 척도	Ip	-.2035	-.2052	-.0707	-.2459	1.0000	.4340*	.4535*	.2348	.2930	.2172	-.2240
	Im	.1586	-.1785	.3075	-.3121	.4340*	1.0000	.3635	-.0447	.2011	.4312*	.0232
	Ic	-.1453	-.1319	.3631	-.0764	.4535*	.3635	1.0000	.1980	.0229	.3422	.0339
감각 추구 척도	TAS	-.2816	.1915	.2065	-.5841**	.2348	-.0447	.1980	1.0000	.4222	.2922	-.0720
	ES	.1759	-.0861	-.1216	-.2852	.2930	.2011	.0229	.4222	1.0000	.3076	.0556
	Dis	.0440	.1050	.1610	-.2100	.2172	.4312*	.3422	.2922	.3076	1.0000	.2772
	BS	.3625	-.2239	.1965	.3065	-.2240*	.0232	.0339	-.0720	.0556	.2772	1.0000

* : P < .01 ** : P < .001

표 5. 범직집단의 각 척도별 백분위 점수

척도	P	E	N	L*	Ip	Im	Ic	TAS	ES	Dis	BS
백분위 점수											
P ₇₅	4	15	17	11	28	18	19	9	6	7	4
P ₅₀	3	12	15	6	25	13	16	8	4	5	3
P ₂₅				4							

* P₇₅ : 상위 25%점, P₅₀ : 상위 50%점, P₂₅ : 하위 25%점.

* L척도에서는 하위 25%점이 유의미한 것임.

표6. 범죄집단의 각 척도별 기준 백분위 점수에 해당되는 피험자들

척도 Num		P	E	N	L	Ip	Im	Ic	TAS	ES	Dis	BS
절 도 범	115	*	*	*			*	*		*	*	
	117	*	*			*					*	*
	120	*	*	*	*	*	*	*		*		
	129	*	*	*	*	*	*				*	
	131	*	*	*		*	*	*	*	*	*	
폭 력 범	139	*	*			*	*				*	*
	146	*	*			*					*	
	147	*	*	*	*	*	*		*		*	
	159	*	*	*	*			*	*	*	*	*
	162	*	*			*		*	*	*	*	*

계 10명

* P, Ip, Im, Ic, TAS, ES, Dis, BS척도 : P₇₅점

E척도 : P₅₀점

L척도 : P₂₅점

논 의

결과는 앞에서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들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1은 지지되었고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가설 2와 4는 기각되었다. 이 같은 결과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외향적일 것이라는 가설 2가 기각된 것은 수감생활의 효과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당시 범죄집단의 피험자들 각각의 그동안의 수감기간과 잔여기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범죄집단의 피험자들은 8월-12년(M=3.38, SD=2.77)의 형기를 받고 수형생활을 하는 중에 심리검사를 받았으며, 이들 모두 이전에도 여러 차례 투옥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Heskin, Smith, Banister 및 Belton(1973)에 의하면 장기수는 단기수보다 내향적이며, 상습범은 여러 번의 수감경험을 통해 점차 내향적이 된다고 한다. 또한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한 이인혜와 유희정(1987)의 연구에서도 성인 상습범들보다 수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년범들이 정상집단의 소년들에 비해 더 외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범죄집단은 수감생활로 인해 그들의 사회성이 낮아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범죄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충동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3이 부분적으로만 지지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충동성에서의 범죄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오직 운동적 충동성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즉, 인지적 및 무계획성의 측면이 아니라 운동적인 측면에서만 범죄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더 충동적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두 집단간에는 충동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운동적 충동성에서 차이가 난 이유는 가설 2가 기각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수형생활 탓이 아닌가 한다. 범죄집단의 피험자들은 오직 그들의 행동(운동)에 대해서만 분명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동적 충동성이 다른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표현되었을 수도 있다.

범죄집단은 통제집단보다 감각추구성향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4가 기각된 이유도 앞의 논의들과 연결된 것 같다. Zuckerman에 의하면 감각추구성향은 외향성 및 충동성과 상관이 높다. 즉,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동시에 외향적이며 충동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충동성에서 범죄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성격특성과 상관이 높은 감각추구성향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감각추구의 네 가지 하위척도중 '권태민감성(BS)' 척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는데, 정상인들이 습관성 범죄자들보다 권태로움을 참아내지 못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본 연구자는 감각추구의 다른 하위척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태민감성'에서는 범죄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왜냐하면 범죄집단의 피험자들은 변화없는 아주 지루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가 예상과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이 모두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던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은 다른 어떤 연령적 및 직업적 집단보다 더 감각추구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통제집단은 범죄집단보다 더 젊었으며, 자신의 모험적, 감각적 성향의 발산이 어느 정도 허용된 특권(?) 집단이었다. 또한 범죄집단의 피험자들에게는 감각추구척도의 문항들이 적합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 즉, 예를 들어, 스쿠버 다이빙이나 낙하산 점핑의 욕구를 묻는 문항들은 범죄집단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실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각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표일 것이다. 표 3과 표 4에서, 범죄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집단에서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높은 척도

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비해 통제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범죄집단의 특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범죄집단은 통제집단과는 달리 어떤 한 척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척도들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단순한 범죄자와 정신병질적 성격의 범죄자를 구분해내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집단이 각 척도들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척도들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범죄자를 정신병질자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표 5에는 각 척도별 백분위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E와 L척도를 제외한 9개의 척도들에겐 상위 25%점을 적용시켰다. 그리고 E척도에는 장기간의 수감효과를 고려하여 상위 50%점, L척도는 사회적 순응성을 평가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사회적 순응에 저항한다고 보여지는 하위 25%점을 적용하였다. 표 6에는 정신병질적 성격척도³⁾들에서 모두 기준점에 해당하는 범죄집단의 피험자 번호가 제시되어 있다. 이들 10명은 모두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고, 외향적이며, 충동성 및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범죄행동을 성격특성으로 이해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범죄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범죄자들이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된 탓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습관형성 탓이거나 무의식적 동기의 표현만으로 설명하려는 단순한 시각을 수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변화가능성을 부정하고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행동과 정신병질적 성격의 연결은 개인의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만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성격 특성들은 내·외적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

3) P, E 척도엔 모두 해당되고
I_p, I_m, I_c 척도중 하나 이상 해당
TAS, ES, Dis, BS 척도중 하나 이상 해당

일 뿐이며, 이탈된 것이 아니라 모두 정상적인 특성들이다. 즉, 습관성 범죄자물에서 뿐만 아니라 정상인들에게서도 고르게, 연속적으로 발견되는 특성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이 상호 또는 환경과 결합하여 강하게, 약하게 나타나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성격특성들이 강하지만 범죄나 정신병 같은 이탈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창조적이고 예술적이며 직업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개인의 잠재력을 옳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고, 외향성, 충동성 그리고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반(비)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채욱(1987). 감각추구 특질이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보상 및 처벌 조건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인혜·유희정(1987). 정신분열증과 비행집단 간의 성격특성 차이: 'P'와 'E'차원의 연결. 한국심리학회지, 6(1), 98-101.

이현수(1989). 성격 및 개인차의 심리학. 우성문화사.

이현수(1990). 이상행동의 심리학. 대왕사.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68). *Dia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2nd Edition(DSM-II).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0). *Dia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3rd Edition(DSM-III).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ndreassi, J. L. (1989). *Psychophysiology* :

Human behavior and physiological response. 2/e. Hillsdale,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rratt, E. S. (1965). Factor analysis of psychometric measures of impulsiveness and anxiety. *Psychol. Rep.* 16, 547-554.
- Barratt, E. S. (1983). The biological basis of impulsiveness: The significance of timing and rhythm disor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387-391.
- Barratt, E. S., Faulk, D. M., Brandi, M. E., & Bryant, S. G. (1986). Effect of phenytoin on N100 augmenting-reducing and the late Positive Complex of the Event-Related Potential: A topographic analysis. *Neuropsychobiology*, 15, 201 - 207.
- Barratt, E. S., & Patton, J. H. (1983). Impulsivity: Cognitive, behavior,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M. Zuckerman (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pp. 77-116, Hillsdale,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laridge, G. (1985). *Origins of mental illness: Temperament, deviance and disorder*. Oxford: Basil Blackwell.
- Cleckley, J. (1976). *The mask of sanity*. St. Louis, Missouri: Mosby.
- Eysenck, H. J. (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III.,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76). *Psychoticism as a dimension of personality*. London: Hodder & Stoughton.
- Eysenck, H. J., & Eysenck, M. W. (1985).

-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New York : Plenum Press.
- Feij, J. A., Orlebeke, J. F., Gazendam, A., & van Zuilen, R. W. (1985). Sensation Seeking : Measurement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J. Strelau, F. H. Farley, & A. Gale (Eds.), *The Biological Bases of Personality and Behavior : Theories, Measurement Techniques, and Development*. Vol. 1, pp. 195-210, Washington : Hemisphere.
- Glow, R. A., Lange, R. V., Glow, P. H., & Barnett, J. (1983). Cognitive and self-reported impulsiveness : Comparison of Kagan's MFFT and Eysenck's EPQ impulsiveness meas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179-187.
- Gray, J. A. (1972). The psychophysiological basis of introversion-extraversion : A modification of Eysenck's theory. In V. D. Nebylitsyn & J. A. Gray (Eds), *The Biological Bases of Individual Behavior*, pp. 182-205, New York : Academic Press.
- Gray, J. A. (1981). A critique of Eysenck's theory of personality. In H. J. Eysenck (Ed.), *A Model for Personality*. pp. 246-276, Berlin : Springer-Verlag.
- Gudjonsson, G. H. (198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PI extraversion score and impulsiveness on a perceptual-motor tas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 177-180.
- Hare, R. D. (1982). Psychopathy and the personality dimensions of psychoticism,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 35-42.
- Heskin, K. J., Smith, F. V., Banister, P. A., & Belton, N. (1973). Psychological correlates of long term imprisonment : Personality variabl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3, 323-330.
- Putnins, A. L. (1982).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and delinquency predi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 339-340.
- Rushton, J. P., & Chrisjohn, R. D. (1981). Extraversion, neuroticism, psychoticism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 Evidence from eight separate sam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 11-20.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dale,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Zuckerman, M. (1983). Sensation seeking : A biosocial dimension of personality. In A. Gale & J. A. Edwards (Eds), *Physiological Correlates of Human Behavior*, Vol. III : *Individual Differences and Psychopathology*, pp. 99-115 London : Academic Press.
- Zuckerman, M. (1985). Biological foundations of sensation-seeking temperament. In J. Strelau, F. H. Farley, & A. Gale (Eds), *The Biological Bases of Personality and Behavior : Theories, Measurement Techniques, and Development*. Vol. 1, pp. 97-113, Washington : Hemisphere.
- Wilson, G. D. (1981). Personality and social behaviour. In H. J. Eysenck (Ed), *A Model for Personality*, pp. 210-245, Berlin : Springer-Verlag.

A Linkage of Criminality and Personality Traits : with Special Reference to Psychoticism, Extraversion, Impulsivity and Sensation Seeking.

Yi, In-Hyae.

Kangwon University

Present research aimed to investigate a linkage of criminality and personality traits.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confirmed criminals and normals on psychoticism, extraversion, impulsivity and sensation seeking. Subjects were 62 recidivists(whose crimes concerned violence and property) being in imprisonment as a criminal group and 30 normals as a control group. All subjec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Korean version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 Barratt Impulsivity Scale(BIS) and Sensation Seeking Scale-V(SSS-V). Results were as follow : a) Criminal group wa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group on psychoticism(P) and impulsivity on motor activity(Im), while control group wa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criminal group on boredom susceptibility(BS).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on extraversion(E). b) On th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various subscale(P, E, N, L, Ip, Im, Ic, TAS, ES, Dis, BS) scores, it was clear that most of all the measures intercorrelated significantly in criminal group, while no inter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3 tests in control group.